

“전통문화 도시 전주서 체험 즐겨요”

한국전통문화전당, 21·24일 설맞이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프로그램 진행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이 21일과 24일 양일간 설맞이 특별행사를 마련했다. 전당에 따르면 이번 특별행사는 전주천년한지관, 전주공예품전시관, 우리놀이터 마루달 등 전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시설에서 진행된다. 먼저, 전주천년한지관에서는 전통한지제조, 한지 소원등 만들기, 닥 옷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전주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는 호사원 포토존 사진 찍서 인화 이벤트인 '호사원과 활각', 그리고 새해 소원을 담아 보는 '새해 소원등 만들기' 공예 체험 등이 이뤄진다. 전국 최초의 정통놀이 전용공간이 우리놀이터 마루달에서는 가족 윷놀이 대항전, 딱지만

들기, 윷잡보기 등 다양한 전통놀이 체험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이어 전당 내에 위치한 한지산업지원센터에서는 전통한지 가오리면 만들기, 한지 북주머니 만들기 체험이, 전당 3층 조리체험실인 '시루방'에서는 쌀감정 만들기 체험이 사전 접수를 통해 실시된다. 한편 전당 홍보관에서 3D입체퍼즐 체험과 윷잡보기, 느린우체통, 한복입기 체험 등 가족과 함께 훈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됐다. 김도영 원장은 “전통문화 도시 전주를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전당에서 전통문화의 가치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놀이터 마루달 전통놀이 체험 모습 (한국전통문화전당 제공)

/장은성 기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설날 한마당 큰잔치 개최

설 연휴기간 풍물놀이 공연·전래놀이 등 다양한 전통문화 체험 진행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은 19일 2023년 설 연휴를 맞아 고향의 의미를 되새기고 고유의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설날 한마당 큰잔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박물관은 설 연휴기간 동안 풍물놀이 공연, 전래놀이, '흑토의 모험' 스토리텔링, 캐리커처 등 다양한 행사 및 체험을 진행해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에게 특별한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주요 행사는 오는 21일과 22일 13시에 새해맞이 신명나는 풍물놀이 공연이 박물관 광장에서 펼쳐져 설 명절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리고 21일~24일 14시에 후호놀이, 제기차기, 윷놀이 등을 박물관 앞 광장 주변에 마련하여 우리 고유의 전래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한다. 또한 토끼의 해를 맞아 박물관 내부 로비, 벽면을 활용, 기획한 '흑토의 모험' 스토리텔링 체험활동이 진행되고 22일과 23일 14시에는 박물관 3층에 캐리커처 체험을 마련하여 나만의 캐리커처를 가져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가지게 된다. 주요 전시로는 박물관 3층 기획전시실에 '순풍파랑, 바람 타고 파도 넘어'의 주제로 선사부터 근현대까지의 선박 전시를 통해 해양 문화를 알아보도록 했으며, 순풍파랑처럼 순풍에 돛을 단 듯 순조로운 한해가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소원 배를 띄워와 체험과 배 키를 잡고 떠나요 포토존을 마련했다.

또한 근대미술관에는 강용면 작가 초대전 '땀에 울림 - Echoes of the earth', 장미겔러리에서는 서희정 작가의 '들관... 그 자리에 꽂은 또 핀다'의 전시가 있어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 및 문화 향유 기회를 선사할 예정이다. 특히 설 당일(22일)에는 박물관을 무료로 운영하고 연휴기간 동안 한복을 입고 방문하면 무료입장을 할 수 있어 많은 귀성객 및 시민들이 박물관에 방문해 '설날 한마당 큰잔치'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이 박물관에서 준비한 다양한 문화행사와 전시를 통해 가족들과 즐거운 명절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군산=김관근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노상놀이야' 사업 공모

도내 14개 시군 대상 2월 1~8일 접수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3 전라북도 거리극축제인 '노상놀이야'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상놀이야'는 전라북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연극 및 거리극, 퍼레이드, 거리예술 등 문화예술 기반의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접수 기간은 2월 1~8일까지다. 심사는 1차 서류 전형과 2차 사업계획을 설

명하는 PT심사로 진행되며, 2월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단체에 1개 시군당 2천 4백만원 을 지원한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전라북도 메가이벤트와 거리극축제 사업을 연계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지역문화관광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나 공연기획추진단(063-230-7406, 7469)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진안군 가위박물관, 겨울방학 맞아 특별체험 프로그램 운영

진안군 가위박물관은 겨울방학 기간 아이들을 위한 우주선, 나비모양 샌드캐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오는 2월 24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가위박물관 도란도란 가위세상 체험실에서 진행된다. 이 기간 가위박물관을 찾는 어린이 동반 관람객에게는 풍선을 증정한다. 이와 관련한 단체관람 및 체험 문의는 진안군 문화체육과 가위박물관 담당 전화(063-430-2324)로 하면 된다.

/진안=우태민 기자



태권도원운영관리(주)는 19일, 전 임직원이 모여 창사 3주년 기념식을 태권도원 도약센터에서 가졌다.

태권도원운영관리, 창사 3주년 기념식 가져

“안전사고 없는 3년, 태권도원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태권도원운영관리(주)대표이사 서필환, 이하 자회사는 19일, 전 임직원이 모여 창사 3주년 기념식을 태권도원 도약센터에서 가졌다. 이날 자회사는 114명 전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자기개발을 실천하여 직무능력을 키우고 회사와 태권도원 발전에 기여하는 선서문을 낭독하는 등 23년 다짐을 밝혔다. 기념식에는 서필환 대표이사를 비롯한 전 직원과 모기관인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사무총장, 본부장 등이 참석해 축하를 더했다. 서필환 대표이사는 축사를 통해 “지난 2년 코로나19 시기를 잘 이겨낸 직원들께 감사하다”며 “올해는 태권도원 운영과 영

업에 모두 합심해서 목표달성의 기쁨을 같이 하자”고 당부했다. 태권도진흥재단 이종갑 사무총장은 자회사 창립 3주년 축하인사에서 “태권도원이 코로나19 시기를 사gado없이 이겨 낸 것은 여러분 덕분이다. 태권도원이 더욱 안전하고 더욱 행복한 여행지로서 우뚝 설 수 있도록 앞으로도 모·자회사 간 단합하고 협력해 나가자”며 이해와 협력을 당부했다. 한편, 태권도원운영관리(주)는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부정책에 따라 태권도진흥재단이 100% 출자한 자회사로서, 2020년 1월 20일 법인이 설립되어, 동년 3월 1일 업무를 개시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고창고인돌 기록화사업’ 최종보고회

현재 총 1748기 고인돌 존재 확인

고창군이 19일 '고창고인돌 기록화사업'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관내 전체 고인돌의 수량과 위치, 현황 파악 등 기록화한 내용과 향후 보존방안을 최종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용역수행한 문화유산연구소의 연구원들과 노형수 고창부군수, 관계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보고, 질의응답, 의견수렴 순으로 이뤄졌다. '고창고인돌 기록화 사업'은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각종 지표조사 등을 통해 확인된 고인돌의 수량과 현황 등이 다르고, 고인돌 관련 민원들이 많아짐에 따라 관내 고인돌의 종합적인 점검 및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사라져가는 고인돌에 대한 보존관리 방안 모색 등 고창고인돌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재조명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고창군은 고인돌 보존관리를 위해 비

지정 고인돌까지 표지판을 설치해 왔으나, 그 과정에서 개별 고인돌의 위치(GPS좌표값 부여)와 사진촬영, 항공촬영, 현황기록, 도면 등을 반영한 기록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고창고인돌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를 병행한 결과, 관내에는 총 2,006기의 고인돌이 확인됐다. 이는 그동안 고인돌이 보고되지 않았던 흥덕면에서도 3기가 확인되는 등 신규 고인돌 60개소 220기 및 멸실된 고인돌 258기가 반영된 결과로, 현재는 총 1,748기의 고인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고인돌 기록화사업을 통해 '고인돌왕국 고창'의 이미지를 정립하고, '세계유산도시 고창'방문의 해를 맞아 고창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세계문화유산 고인돌뿐만 아니라 고창군 전역의 다양한 고인돌까지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제9회 무주 반딧불배 전국 스키 스노보드 대회

1월 31일(화)~2월 1일(수)
무주 덕유산리조트 스키장

주최: 전주매일신문사
주관: 전라북도 스키협회
후원: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 덕유산리조트, 전라북도체육회

**참가 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신문사)

